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4, pp.67-74, July 31, 2022. pISSN 2384-0358, eISSN 2384-0366

http://dx.doi.org/10.17703/JCCT.2022.8.4.67

JCCT 2022-7-9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Development and Efficacy of Psychiatric Nursing Simulation Practical Training progra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김남석*, 김수진**, 송지현***

Kim, Namsuk*, Kim, Soo-Jin, Song, Ji-Hyeu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 되었다. 본 연구는 단일군 사전·사후설계 연구이며 자료수집은 J소재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 186명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공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의사소통능력(t =-2.575, p =001), 학습자기효능감(t =-2.228, p=.026)과 문제해결능력(t =-2.298, p=.017)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적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간호대학생, 표준화 환자, 시뮬레이션, 의사소통능력, 학습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apply a mental simulation practice progra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nursing students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This study is a single-group pre- and post-design study, and a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provided to 186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in J for data collection.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7.0 progra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mental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program using standardized patients showed the subjects' communication ability (t =-2.575, p =001), learner self-efficacy (t =-2.228, p =.026) and problem-solving ability (t =-2.298, p =.017) was found to be effective.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 simulation practice education program that creates an environment similar to the actual situation and applies various cases using the necessary resources to improve the field adaptation ability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imulation Practice, Communication Competence, Learning Self-Efficacy, Problem Solving Ability

*정회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참여저자)
***정회원, 제주한라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2년 5월 26일, 수정완료일: 2022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7월 2일

Received: May 26, 2022 / Revised: June 21, 2022
Accepted: July 2, 2022
***Corresponding Author: kasili0809@daum.net
Dept. of Nursing, ChejuHalla University, Korea

Ⅰ. 서 론

간호학은 이론과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교과과정이 편성되어 있다. 간호학은 이론과 실습으로 습득한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여 환자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간호학에서 임상 실습은 중요하다[1]. 특히, 정신간호 실습은 환자의 건강 문제 특성상 인간에 대한 신경생물학적, 정신 심리적, 사회문화적 이해를 포함하여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기에 다른 임상 분야와는 다른 경향을 보인다[2].

정신간호학의 다양한 개념 중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은 특히 강조되는 부분으로, 이는 간호대학생들이 교내 실습과 임상 실습하는 동안 배워야 할 필수적인 기술이다[3]. 간호대학생들이 정신간호 실습 진행 시 직면하는 문제는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와 의사소통 미흡, 상호작용 경험 부족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정신간호 실습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4]. 또한, 간호사 부족, 대상자의 높은 민감도, 제한된 임상 배치와 임상 실습시간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임상 실습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5] 정신간호 실습에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방법은 중요한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교육방법이다. 즉, 학생들은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부담감,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긴장감과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학습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6]. 이에 반해 시뮬레이션 실습은 임상환경과 유사한 환경에서 시나리오를 구동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상황에 맞는 간호 수행을 제공할 수 있고, 디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학습효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은 크게 고충실도 시뮬레이션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과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실습으로 구분된다. 표준화 환자는 교육적 목적을 갖고 환자 역할 수행을 위한 훈련된 사람을 말한다. 표준화 환자는 질환에 대한 주관적 증상을 표현할 수 있는 일관된 연기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실제적이고 현장감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학생을 시뮬레이션에 참여시키는 역할을 한다[8].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은 임상실무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 간호대학생과 표준화 환자에게 직접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성 있는 경험과 지식습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6].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여 환자의 예후 및 증상을 개선하고 불안을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9].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에서 표준화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한 학습된 치료적 의사소통기술은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대상자와 신뢰 관계 형성을 촉진하고[10], 임상 현장 적응력과 순발력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며[11],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12]. 또한, 실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의 증상 경험은 대상자와 가족의 다양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다[11].

최근 연구에서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 간호에 대한 자신감, 지식 등 전반적으로 학습효과를 높였고, 이를 통해 정신간호 실습에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은 강화되었음을 보고하였다[13]. 특히, 표준화 환자의 역할을 배우가 연기를 하면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한다. 현재 간호학에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고충실도 기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는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간호대학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및 정신간호 분야에서 현장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신간호 실습교육에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학습자기효능감,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학습자기

효능감 및 문제해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군 전후설계 연구이다.

2. 연구도구

1) 의사소통 능력

의사소통은 능력은 Rubin이 개발한 의사소통능력척도(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를 허경호[14]가 우리 정서에 맞게 수정·보완한 후 타당성을 검증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5문항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허경호[14]의 연구에서 도구 개발 당시 Cronbach's α= .72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α= .80이었다.

2) 학습자기효능감

학습자기효능감은 Ayres[15]가 개발한 학습자기효능감 도구를 박신영과 권영란[9]이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의 Likert 7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최소 10점에서 최고 7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습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신영과 권영란[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6이었다.

3)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박정환과 우옥희[16]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발견, 문제정의, 문제해결책 고안, 문제해결책 실행, 문제해결 검토인 5개 영역 총 25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의 점수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25점부터 최고 125점까지의 범위를 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정환과 우옥희[16]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9이었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94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 대상자는 J시 간호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을 서면으로 동의한 자로 편의 표집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3월 2일~ 4월 22일까지 이루어졌다.

4.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 개발

본 교육 프로그램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시뮬레이션 실습으로 4학년 1학기 6주 동안 분반 당 총 8시간으로 진행하였다.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경험이 있는 정신간호학 교수 1인, 정신과병동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수간호사, 정신보건 전문간호사 1인으로부터 전문가 타당도를 받았다. 반 구성은 총 10개의 반, 1개 반은 20~24명, 한 조에 4~5명, 5개 조로 구성되었다. 교육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1) 표준화 환자 교육

개발된 사례를 실제 상황처럼 연기할 수 있는 표준화 환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1달 동안 연극배우자들이 소속되어있는 극단을 대상으로 모집 공고한 후 표준화 환자의 역할에 대해 참여 의사를 밝힌 연기자 1명을 선발하였다. 표준화 환자 훈련은 Wallaces [17]의 표준화 환자 코칭에 관한 사항을 토대로 2022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1시간, 각 연습 세션은 3시간씩 3세션으로 총 9시간을 훈련하였다. 주요 교육 내용은 자살 시도 경험이 있는 우울증 환자, 환청과 망상을 경험하고 조현병 환자의 신체적·정서적 특성을 모든 학생에게 일관되고 동일하게 반응해야 하는 표준화 환자의 역할과 필요성, 정확성과 비밀보장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교육하였다. 또한, 해당 시나리오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연기 연습을 지도하였다. 연구자는 표준화 환자를 상대로 학생 역할을 하면서 표준화 환자들이 연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표준화 환자 연기자와 전문가 집단인 정신과병동 수간호사, 그리고 정신보건 전문간호사가 연기를 모니터링하게 함으로써 표준화 환자 역할에 대한 시나리오를 수정·보완하였다. 최종적으로 학생들의 수행 능력에 대한 다양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수행을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경우를 둘 다 경험하도록 리허설을 시행한 후 상황이 똑같아졌는지 점검하는 모의시험을 시행하여 표준화하였다.

2) 동영상 촬영자 교육

연구자는 교내 시뮬레이션 실습 전담 직원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환자 교육과정에 참여시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연기자는 전담직원에게 평가기준을 미리 점검하고, 평가항목별 채점을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교육하였다. 최종 점검 시 시범 촬영을 모니터한 후 촬영해야 하는 장면과 촬영 이외에 학생들이 문제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떠한 힌트도 주지 말 것 등의 촬영 지침을 재교육하였다.

3) 평가자 훈련

평가자 훈련은 표준화 환자 1명과 교수 3인으로 구성된 총 4명의 채점자를 대상으로 1시간씩 평가자 훈련을 시행하였다. 평가자의 교육은 시나리오와 평가 기준표를 점검하였고, 모의 상황을 동시에 개별적으로 평가하도록 하여 평가자 간 일관성과 객관성을 검토한 후 평가 기준표를 수정·보완하였다. 연구자는 평가자와 함께 최종 점검을 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장면에 대한 논의를 한 후 평가자 훈련을 마무리하였다.

5.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 운영

1) 오리엔테이션 및 사전학습

연구자가 수업 시작 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학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진행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시행한 후 학생들은 50분 동안 정신간호 사례적용 이론 학습을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시나리오에 대한 상황 소개 및 지침에 관해 설명하고 이를 숙지하도록 하였다.

2) 시뮬레이션 실행

학생들은 4-5명씩 한 조를 이루게 한 후 개인별로 1인의 표준화 환자와 1인의 참여교수가 배석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실에서 10분 동안 표준화 환자를 대상으로 간호 사정과 중재를 시행하였다. 표준화 환자는 실제 임상에서와 유사하게 환자의 역할을 재현하도록 하였다. 각 팀이 시뮬레이션에 참여하는 동안 나머지 팀은 Open Lap에 대기하면서 준비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구동을 한 후 참여교수와 표준화 환자는 각각 간호수행능력과 태도를 평가하였다.

3) 디브리핑

디브리핑은 시뮬레이션 구동이 끝난 후 디브리핑 룸에서 이루어졌다. 평가는 교수와 학생이 녹화된 동영상을 보면서 상황을 분석한 후 디브리핑을 시행하였다. 학생들은 디브리핑 후 자신이 시뮬레이션 실습을 시행하는 동안 수행한 간호중재 중 효과적인 부분과 비효과적이거나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리고, 비효과적이었거나 수행하지 못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자기학습 시간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7.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의사소통능력, 학습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시뮬레이션 전·후 결과는 paired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에서 '여학생' 158명(85.0%), '남학생'은 28명(15.0%)이며, 연령은 '21세 이하'에서 83명(44.6%), 22~23세 68명(36.6%), 24세 이상 35명(18.8%)이며 평균연령은 23.28±5.28세로 나타났다. 전공 만족도는 '만족'이 128명(68.8%), '보통' 55명(29.6%), '불만족'은 3명(1.6%)이었다.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가 180명(96.8%), '필요하지 않다'가 6명(3.2%)으로 나타났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6)

Variables	Categories	n(%)	Mean±SD
Gender	Women	158(85.0)	
	Men	28(15.0)	
Age	≤21	83(44.6)	23.28±5.28
	22-23	68(36.6)	
	24≤	35(18.8)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28(68.8)	
	Moderate	55(29.6)	
	Dissatisfaction	3(1.6)	
The need for standardized patient practice	Yes	180(96.8)	
	No	6(3.2)	

SD=standard deviation, SP=standardized patient

2.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 의사소통능력, 학습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의 차이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전·후 의사소통능력, 학습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의사소통능력은 시뮬레이션 실습 전 3.62±.38점에 비해 시뮬레이션 실습 후 3.72±.40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575, p=.001). 학습자기효능감은 시뮬레이션 실습 전 5.72±.88점에 비해 시뮬레이션 실습 후 5.92±.81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228, p=.026)고, 문제해결능력은 시뮬레이션 실습 전 3.77±.47점에 비해 시뮬레이션 실습 후 3.89±.48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t=-2.298, p=.017).

표 2. 대상자의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효과
Table 2. Effect of Participant's Mental Health Nursing Simulation Practicum (N=186)

Variables	Pre-test	Post-test	t	p
	M±SD	M±SD		
Communication Competence	3.62±.38	3.72±40	-2.575	.010
Learning Self-Efficacy	5.72±.88	5.92±.81	-2.228	.026
Problem Solving Ability	3.77±.47	3.89±.48	-2.398	.017

Ⅳ.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를 적용하여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시뮬레이션 실습 적용 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의 선행연구[3-4]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 분야 임상실습 시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 및 상호작용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18].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간호대학생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교육을 통해 정신건강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기술을 향상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상 현장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19]. 이와 대조적으로 의사소통능력에 대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도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표준화 환자가 너무 현실적인 반응을 보임으로써 학생들은 당황하게 되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20]. 간호대학생들이 의사소통 능력을 행동으로 나타내기까지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21]. 이와 같이 선행연구결과를 통해 의사소통을 이론적으로 학습하기보다는 실제 상황과 유사한 시뮬레이션 상황에서 표준화 환자와 직접 의사소통을 해봄으로써 간호대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정신간호 분야의 임상 실습 이전에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을 선행하여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다양한 사례를 반영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 프로그램 모듈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학습자기효능감은 시뮬레이션 실습 적용 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9],[22-23]. 자기효능감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평가인 동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지만,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능력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24].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상황이라는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 동안 불안을 경험하게 되고, 정신 간호 실습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간호대학생들은 정신간호 임상 실습에 대한 불안, 두려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낮은 학습자기효능감을 보이게 된다[25]. 그러나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인지적 능력이 더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학습 자기효능감은 향상된다[9]. 간호대학생들은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을 통해 안정한 환경조성 및 현실감을 경험해봄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과 높은 학습자기효능감을 경험하게 된다[25]. 향후 학습자기효능감이 의사소통,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역량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에서 간호대학생들에게 단계별 자기효능감 인식을 파악하는 한편, 실제 임상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방식의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시뮬레이션 실습 적용 후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과 관련하여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효과를 확인한 논문은 매우 부족하였다. 또한, 정신간호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의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의 Jeong[20]의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은 임상 현장에서 겪게되는 건강상태 판단 능력 증진, 간호중재 우선 순위 설정 및 수행능력 향상,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의사소통 수행, 복합적인 상황관리 능력 습득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는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27]. 즉,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 과정에서 문제를 통합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실습 교과목 내 주어진 상황에서 표준화 환자를 적용하여 간호문제를 통합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증진되었다 볼 수 있으며[26], 향후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에서 문제해결능력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통적 실습교육의 틀을 벗어나 학생들의 현장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 상황과 유사한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사례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일 대학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으며, 교과과정 중 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같은 학년을 동일한 시기에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이 진행되었기에 대조군을 설정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간호 시뮬레이션 실습은 유사한 임상 환경 및 다양한 상황을 통해 간호대학생에게 현실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시뮬레이션 실습 종료 후 디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자기성찰의 시간을 제공하였다. 무엇보다도 간호대학생과 표준화 환자와의 상호작용과정에서 의사소통기술, 학습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을 포함한 간호역량을 향상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에 따른 의사소통능력, 학습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의 변화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표준화 환자를 활용한 정신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시뮬레이션 전·후 의사소통능력, 학습자기효능감과 문제해결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실험 효과를 명확히 하기위해 대조군을 둔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다양한 상황 또는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시행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Y.H. Shin, H.K. Hur, S.M. Park, H.Y. Song, G.Y. Kim,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Clinical Nursing Practice Course for Improvement of Nursing Competency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3, No. 1, pp. 32-40, 2007.

[2] J.S. Han, H.C. Baek, A.S. Jeong, “The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Simulation on Anxiety and Self-confidence about Clinical Plac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11, pp. 7812-7819, 2015. https://doi.org/10.5762/KAIS.2015.16.11.7812

[3] C.T. Martin, N. Chandra, “Mental health clinical simulation: therapeutic communication,”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12, No. 6, pp. 209-213, 2016. https://doi.org/10.1016/j.ecns.2016.02.

[4] C.T. Martin, N. Chanda, “Mental Health Clinical Simulation: Therapeutic Communication,”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12, No. 6, pp. 209-214, 2016. https://doi.org/10.1016/j.ecns.2016.02.007

[5] A.M. Brown, “Simulation in Undergrduate Mental Health Nursing Education: A literature Review,”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11 No. 10, pp. 445-449, 2015.https://doi.org/10.1016/j.ecns.2015.08.003

[6] H.J. Kim, "The effects of Pre-briefing Team-based Learning in Standardized Patients Simul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8, No. 8, pp. 271-279, 2020. https://doi.org/10.14400/JDC.2020.18.8.271

[7] K.K. Shim, M.S. Son, E.S. Ji, "The Effectiveness of Child Nursing Simul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 on Nursing Student's Anxiety, Self-efficac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10, pp. 299-308, 2017. https://doi.org/10.5762/KAIS.2017.18.10.299

[8] E.E. Suh, "Development of a Conceptual Framework for Nursing Simulation Education Utilizing Human Patient Simulators and Standardized Pati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 18, No. 2, pp. 206-219, 2012.

[9] S.Y. Park, Y.R. Kweon, "The effect of Using Standardized Patients in Psychiatric Nursing Practical Training fo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 21, No. 1, pp. 79-88, 2012. https://doi.org/10.12934/jkpmhn.2012.21.1.79

[10]E. Sidares, G. McKenzie, J. Noone, D. Markle, M. Frazier, M. Sullivan, "Making Simulation Come Alive: Standardized Patients in Undergraduate Nursing Education,"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 34, No. 6, pp. 421-425, 2013. https://doi.org/10.5480/1536-5026-34.6.421

[11]C.A. Ryan, N. Walshe, R. Gaffney, A. Shanks, L. Burgoyne, C.M. Wiski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to assess Communication Skills in Medical and Nursing Students," *BMC medical education*, Vol. 10, pp. 1-8, 2010. https://doi.org/10.1186/1472-6920-10-24

[12]Å.K. de Presno, A. Øgård-Repål, M. Fossum, "Simulations with Standardized Patients for Nursing Students in Preparation for Clinical Placements in Mental Health Care,"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54, pp. 70-76, 2021. https://doi.org/10.1016/j.ecns.2021.01.009

[13]L.Garvey, G. Willetts, N. Sadoughi, M. Olasoji.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Experience of Mental Health Simulation Post Clinical Placement: A Qualitativ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Nursing*, Vol. 30, No. 1, pp. 93-101, 2020. https://doi.org/10.1111/inm.12801

[14]G.H. Hur,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47, No. 6, pp. 380-408, 2003.

[15]H. W. Ayres, "Factors Related to Motivation to Learn and Motivation to Transfer Learning in a Nursing Population," Dissertation's thesis, Raleigh: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2005.

[16]J.W. Park, O.H. Woo, "The Effects of PBL (Problem-BasedLearning) on Problem Solving Process by Learner's Metacognitive Level.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Vol. 15, No. 3, 55-77, 1999.

[17]P. Wallace, "Coaching Standardized Patients: For Use in the Assessment of Clinical Competence," New York: Springer. 2007

[18]S.T. Lehr, B. Kaplan, "A Mental Health Simulation Experience for Baccalaureate Student Nurses,"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9, No. 10, pp. 425-431, 2013. https://doi.org/10.1016/j.ecns.2012.12.003

[19]J. Doolen, M. Giddings, M. Johnson, G. Guizado de Nathan, L.O. Abadia, "An Evaluation of Mental Health Simulation with Standardize Pati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Vol. 11, No. 1, pp. 55-62, 2014. https://doi.org/10.1515/ijnes-2013-0075.

[20]S.K. Chung, K.A. Kim, E.Y. Jeong, "The Effects of Simulation Practicum using a Standardized Patient on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Skills, Problem-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s, and Clinical Competenc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Care Nursing*, Vol. 23, No. 2, pp. 186-194, 2016. https://doi.org/10.22705/jkashcn.2016.23.2.186

[21]E. Ok, F.Y. Kutlu, E. Ates, "The Effect of Standardized Patient Simulation Prior to Mental Health Rotation on Nursing Students' Anxiety and Communication Skill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Vol. 41, No. 3, pp. 251-255, 2020. https://doi.org/10.1080/01612840.2019.1642427

[22]Y.K. Bak, T.K. Kim, "The Effect of Simulation-based Education Using a Standardized Patients for Schizophrenia Nursing care on Communication Self-Efficacy, Learning Self-Efficacy and Flow Experience in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6, pp. 437-447, 2018. https://doi.org/10.35873/ajmahs.2018.8.6.040

[23]S.O. Kim, H.S. Kim, "Effects of Psychiatric Nursing Practicum using Simulated Patients 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Learning Self-Efficacy, Satisfaction of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4, No. 2, pp. 396-408, 2014. https://doi.org/10.5392/JKCA.2014.14.02.396

[24]S. Kardong-Edgren, "Bandura's Self-Efficacy Theory…Something is Missing," Clinical Simulation in Nursing, Vol. 9, No. 9, e327-e328, 2013. https://doi.org/10.1016/j.ecns.2013.07.001

[25]H.J. Oh, M.J. Kim, K.M. Park, "The Impact of Nursing Students' Learning Satisfaction on Motivation to Transfer in the Practicum of Psychiatric Nursing Convergence Simulation Using Standardized Patients: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n learning,"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1, No. 9, pp. 375-383, 2020. https://doi.org/10.15207/JKCS.2020.11.9.375

[26]M. Eom, H. Kim, E. Kim, K. Seong, "Effects of Teaching Method Using Standardized Patients on Nursing Nompetence in Subcutaneous Injection,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40, No. 2, pp. 151-160, 2010.

[27]W.F. Bond, L.M. Deitrick, D.C. Arnold, M. Kostenbader, G.G. Barr, S.R. Kimmel, et al, "Using Simulation to Instruct Emergency Medicine Residents in Cognition Forcing Strategies," *Academic Medicine*, Vol. 79, No. 5, pp. 438-446, 2004. https://doi.org/10.1097/00001888-200405000-00014